

The 논술	2017 중앙대 모의논술
--------	---------------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다양한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진정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각 제시문에 나타난 대화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라)의 소통 방식은 문제도 있지만 나름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효용을 기술하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기술된 위정척사의 효과를 설명하고, 제시문 (자)의 논지를 사회 발전의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위정척사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가)

처 :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교수 : 괜찮어. 밥 먹었어.

처 : 어디서요

교수 :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구.

처 : 언제요

교수 : 오늘 아침에도 먹었구, 점심두……. 글썄…… 그러구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 하겠군.

처 :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짚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검둥이와 미녀』,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넷뿐인가요

교수 :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 :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잔치를 했는데.

처 : 당신두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구.

교수 :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만 환을 내지 않았소

처 :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지요.

교수 :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처 :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교수 : 됐어,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며) 아이, 피곤해.

(중략)

처 : 공부는 안 하세요?

교수 : 공부?

처 : 아, 번역 말이에요.

교수 : 좀 쉬어야겠어.

처 :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 입으세요.

교수 : 아이, 피곤해.

제시문 (나)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중립국.”

“동무, 지금 인민 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중략)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지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 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쪽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중립국.”

(중략)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낚시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걸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제시문 (다)

그 밖의 농장 동물들은 알파벳의 첫 글자 ‘에이’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또 알고 보니 양, 암탉, 오리 등 머리가 둔한 동물들의 경우는 일곱 계명조차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였다. 한참 생각한 끝에 스노볼은 그 일곱 계명이 단 한 줄의 격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 한 줄이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것이었다. 스노볼은 그 한 줄 속에 동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누구든 그 원리를 철저히 깨치기만 하면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였다.

(중략)

그는 말했다.

“동무들, 새의 날개는 날기 위한 추진 기관이지 나쁜 짓을 하는 기관이 아니요. 그러므로 날개는 다리로 간주 되어야 하오. 인간의 특징적인 표지는 그의 ‘손’이요. 손은 그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도구입니다.”

날짐승들은 스노볼이 사용한 길고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머리 둔한 동물들도 스노볼이 말한 한 줄짜리 격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헛간 벽에는 일곱 계명 위쪽에 계명의 글자들보다 더 큰 글씨로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새 문장이 추가되었다. 일단 외우고 나자 동물들은 그 격언이 몹시 맘에 들었다. 그들은 가끔 풀밭에 누워 일제히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

다!’를 몇 시간씩 지칠 줄 모르고 외쳐댔다.

제시문 (라)

이조판서 최명길의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이니,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이 성 밖으로 나가 말길을 터야 할 것이오.”

예조판서 김상헌은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려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어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 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소.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 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소.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아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혀야 할 것이오.”

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얇소.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소.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단 말이오?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란 말이오. 더구나…….”

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降)이오. 아 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중략)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예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이오. 예판은 지금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고 있소. 갇힌 성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오.”

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단 말이오? 이판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이며, 이판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고 있소. 나는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

“죽음은 가볍지 않으며,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려 하지 마시오.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오.”

제시문 (마)

이순신은 7년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12척의 배로 200여 척의 왜선 함대를 맞아 승전고를 울린 명량 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이순신은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병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을까요?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에게 부산과 동래성이 연이어 함락되자, 경상 감사와 경상 우수사는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출전을 주장하는 장수들과

출전을 반대하는 장수들의 찬반 논쟁이 격렬하여 이들 사이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자신의 출전 의지를 먼저 밝히지 않고 장수들의 찬반양론을 충분히 듣고 난 후 출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토론을 통해 출전 반대론자들의 근거였던 관할 지역 이탈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일본군에 대한 정보, 경상도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토론을 하여 공동의 뜻을 확인하고, 장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이순신은 고뇌에 찬 결단을 과단성 있게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순신은 첫 출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제시문 (바)

옛 그림을 보여 드리기 전에 우선 옛 그림을 감상하는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인들의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첫째는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둘째는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란 똑같은 것인데 옛날 사람의 눈은 현대인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옛사람 마음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의아하지요? 요새 그림은 대개 이렇게 생겼지요? 가로가 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그림은 족자건 병풍이건 세로가 길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로쓰기를 하기 때문에 왼쪽 위부터 사물을 봅니다. 이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습관이죠. 이와 달리 우리 조상들은 한문도 세로로 쓰셨고, 한글도 이렇게 세로쓰기로 쓰셨습니다. 시간을 들여 찬찬히 사물을 볼 때도 먼저 오른쪽 위를 봤다가 왼편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스쳐 내려가지요. 이게 아주 다른 점입니다. 우리 그림을 무심코 서양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위에 X 자가 그려지지요. 틀린 것입니다. 옛 그림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바라보지 않으면 그림 위에 X 자만 그어지고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제시문 (사)

집단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구분 짓는 경계에 따라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한다. 한 개인이 소속되어 동일시하는 집단은 ‘내집단’이고, 동일시하지 않고 이질감을 느끼는 집단은 ‘외집단’이다. 이는 구성원의 소속감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내집단은 그 집단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집단의 구성원은 내집단 의식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 내의 유대감, 협동심 또는 충성심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외집단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고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외집단에는 경기의 상대 팀, 타 종교 집단, 전쟁 중의 적군 등이 해당되는데, 구성원들은 때로는 외집단을 통해 집단 결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제시문 (아)

19세기 중엽 서양 열강이 접근해 오자, 양반 유생들은 서양 문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는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흥선 대원군 집권 당시 프랑스와 미국이 수교를 요구하며 침략해 오자, 이항로와 기정진 등은 척화주전론을 주장하며 흥선 대원군의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다. 또한, 1870년대 일본이 문호 개방을 요구하자,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은 일본과 서양이 같은 세력이라는 왜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1880년대에도 위정척사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영남 지방의 유생들은 이만손을 중심으로 「만인소」를 올려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위정척사 운동은 서양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략에 맞선 반외세 운동이었다.

제시문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환이든, 교환은 이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교환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 준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두가 스스로 생산한 것만 소비해야 한다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교환에서 나오는 이득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커질수록 한층 더 커진다.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서만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비슷비슷한 물건들 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교환을 해 보았자 별다른 이득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의 범위가 마을 사람들 전체로 넓어지면 교환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교환에서 생기는 이득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

1.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17년 모의논술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논술 제시문을 선별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번 모의논술의 대주제는 ‘소통’이다. 구체적으로 1) 각 제시문에 나타난 다양한 대화 장면에서 진정한 소통이 실현되지 않는 표면적인 이유와 심층적인 원인을 찾는 텍스트 독해력과 종합적 분석력, 2) 불통의 시대 성공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자세와 조건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 3) 세계화 시대 특정 집단 내에서만의 긴밀한 소통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해 보는 비판적 사고력 등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시문들의 논지와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제시문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또한 이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출제 의도

문제 1

이 문제에서 제시된 네 개의 제시문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 주제로 묶일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각 제시문에 나타난 대화가 진정한 소통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보다 심층적인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해 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제시문에 담겨 있는 대화에서 나타난 ‘소통’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반복적인 일상의 피로감에서 비롯된 교수의 비적극적 소통 자세(제시문 가), 2) 이상 추구의 좌초로부터 발생한 세상에 대한 환멸과 절망으로 인한 이명준의 소통 거부(제시문 나), 3) 이해력의 결여와 무지에서 비롯된 동물들의 수동적이고 지극히 일방향적 소통(제시문 다), 4) 급박한 상황임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신념의 극단적 대립으로 일관된 논쟁적 소통(제시문 라)을 정확히 파악하여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팽팽히 맞선 쟁론적 소통방식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효용을 최대화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마)의 이순신의 의사결정 사례를 통해 일견 소모적으로 보이는 찬반 격론이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예견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용 가치가 있음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의 간극만 넓힐 수 있는 쟁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제시문 (바)의 옛 그림 감상법에서 진정한 소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고 프레임에서 탈피해 타자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함을 유추해야 한다. 이때 쌍방의 의견 격차가 좁혀질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시문 (마)의 이순신의 사례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도출해야 한다. 이때 결정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 3

집단 내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의견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 소통이 외부와의 교류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본 문제는 위정척사라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질적인 두 집단/국가 간의 교류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효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해 보도록 출제되었다. 이때 사회집단 분류라는 틀을 적용할 것과 자유무역의 논지를 확대 해석할 것을 요구하여 이론의 적용 능력 및 확장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시문 (사)의 내 집단/외집단의 개념 및 특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집단 개념을 토대로 제시문 (아)의 위정척사를 내집단인 조선과 외집단인 서양 열강 및 일본 간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여 외집단의 출현으로 인해 내집단의 결속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한편 위정척사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자)의 자유 무역 논리, 즉 교환의 범위가 넓을수록 다양성이 높아져 이득이 커짐을 파악한 후 이를 경제 문제에서 사회 발전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제시문 (아)의 위정척사 운동이 다양한 사상과 문명의 교류를 제한함으로써 사회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여 사회의 정체 및 도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이근삼의 「원고지」의 일부이다. 해당 작품은 「[1] 문학의 수용」이라는 단원에 실렸으며, 이 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평가하고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무미건조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지친 한 가장의 모습을 그렸으며, 각 등장 인물의 관점에서 삶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쳇바퀴 돌듯 반복적인 업무와 가장으로서의 역할에서 오는 무게감과 피로감으로 인해 비적극적 소통으로 일관하는 교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과서) 교과서에 실린 최인훈의 「광장」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작품은 '02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 작품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한국 문학에 담겨진 한국만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특수성이 세계 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해당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남과 북의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 속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는 이명준이라는 지식인 청년의 고뇌를 그린다. 이상 추구의 좌초에서 비롯된 남과 북 모두에 대한 환멸과 삶에 대한 절망이 그려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준이 취한 소통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에 실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의 일부이다.

‘[1] 문학과 인접 분야’라는 단원에서 다뤄진 해당 작품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물농장」은 동물들의 여러 행태를 보여 줌으로써 독재정치의 단면을 풍자했다. 특히 이해력의 결여와 비판능력의 부재로 인해, 주어진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독재정치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에 실린 김훈의 「남한산성」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문제 의도에 맞게 운문한 것이다. 이 작품은 ‘(2) 문학과 인접 분야’ 단원에서 문학과 역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선정되어 실렸으며 조선 후기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여러 인물들의 이념적·인간적 갈등을 보여 준다. 특히 원문에서 발췌하여 운문된 제시문 (라)에서는,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김상헌과 최명길의 극한 논쟁이 갖는 ‘소통’으로서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천재교육) 3장 <설득을 위한 화법과 작문>에 실린 박종평의 「그는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설득의 열쇠는 경청에 있다’는 문제 의식 아래 명량 해전을 앞둔 이순신의 의사결정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지혜와 자세는, 양측의 주장과 견해를 충분히 경청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지사지와 심사숙고의 자세, 양측의 이견을 가능한 한 좁힌 단계에서 단호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결단력임을 설명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지학사) 2장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에 실린 오주석의 「옛 그림 감상의 두 원칙」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전시장에서 옛 그림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체화되고 습관화된 서양식 ‘가로쓰기’ 인식의 틀에서 탈피해 선인들의 인식 체계인 ‘세로쓰기’의 시각으로 옛 그림을 감상해야만 진정한 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술 작품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역지사지의 자세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교과서에 실린 「사회 집단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의 일부이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사회 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집단을 소속감과 동일감에 따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내집단 의식을 통해 정체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질감을 느끼는 외집단이 있을 경우 내집단의 결속과 협동이 강화되기도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한국사』(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의 일부를 발췌한 글로서 조선 후기 열강의 문호 개방 요구에 맞서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당시 위정척사 운동을 통해 조선인들이 타 국가 및 문화와의

교류를 거부하고 본래의 전통적인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미래엔) 교과서에 실린 「자유 무역의 이론과 현실」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III.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단원에서 글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교환은 그것이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든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이득이 되며, 그 범위가 커질수록 교환의 내용이 다양해져 교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진다는 자유 무역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1. 1번 문제 풀이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다양한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진정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각 제시문에 나타난 대화의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1)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가)	제시문 내용
	처 :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교수 : 괜찮어. 밥 먹었어.
	처 : 어디서요
	교수 :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구.
	처 : 언제요
	교수 : 오늘 아침에도 먹었구, 점심두……. 글썄…… 그러구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 하겠군.
	처 :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짚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검둥이와 미녀』,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넷뿐인가요
	교수 :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 :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잔치를 했는데.
	처 : 당신두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구.
	교수 :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만 환을 내지 않았소
	처 :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래서 그랬지요.

	<p>교수 :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p> <p>처 :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p> <p>교수 : 됐어,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며) 아이, 피곤해.</p> <p>(중략)</p> <p>처 : 공부는 안 하세요?</p> <p>교수 : 공부?</p> <p>처 : 아, 번역 말이에요.</p> <p>교수 : 좀 쉬어야겠어.</p> <p>처 :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도 옷 좀 갈아입으세요.</p> <p>교수 : 아이, 피곤해.</p>
	<p>기준에 따른 독해</p>
	<p>(가)에는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처에게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교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반복되는 일상과 가장으로서의 피로감에서 비롯된다.</p>
<p>(나)</p>	<p>제시문 내용</p> <p>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p> <p>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p> <p>“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p> <p>“중립국.”</p> <p>“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p> <p>“중립국.”</p> <p>“동무, 지금 인민 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오.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p> <p>“중립국.”</p> <p>(중략)</p> <p>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로. 제</p>

	<p>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 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 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p> <p>“중립국.”</p> <p>“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땅에 가겠다고 나서서, 동쪽으로서 어찌 한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p> <p>“중립국.”</p> <p>(중략)</p> <p>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 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꼬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 낚시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 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 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나)에는 전향을 설득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완고히 고 집하는 이명준의 불통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이 좌초 되어 세상을 환멸하고 삶의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p>
<p>(다)</p>	<p>제시문 내용</p> <p>그 밖의 농장 동물들은 알파벳의 첫 글자 ‘에이’ 이상으로는 나가지 못했다. 또 알고 보니 양, 암탉, 오리 등 머리가 둔한 동물들의 경우는 일곱 계명조차도 다 외우지 못한 상태였다. 한참 생각한 끝에 스노볼은 그 일곱 계명이 단 한 줄의 격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 한 줄이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 쁘다.’라는 것이었다. 스노볼은 그 한 줄 속에 동물주의의 기본 원리가 다 포함 되어 있다고 말했다. 누구든 그 원리를 철저히 깨치기만 하면 인간의 영향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얘기였다.</p> <p>(중략)</p> <p>그는 말했다.</p>

	<p>“동무들, 새의 날개는 날기 위한 추진 기관이지 나쁜 짓을 하는 기관이 아니요. 그러므로 날개는 다리로 간주 되어야 하요. 인간의 특징적인 표지는 그의 ‘손’이요. 손은 그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 도구입니다.”</p> <p>날짐승들은 스노볼이 사용한 길고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설명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머리 둔한 동물들도 스노볼이 말한 한 줄짜리 격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헛간 벽에는 일곱 계명 위쪽에 계명의 글자들보다 더 큰 글씨로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새 문장이 추가되었다. 일단 외우고 나자 동물들은 그 격언이 몹시 맘에 들었다. 그들은 가끔 풀밭에 누워 일제히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를 몇 시간씩 지칠 줄 모르고 외쳐댔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다)에는 동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스노볼의 말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은 이해력 결여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무지의 결과이다.</p>
(라)	<p>제시문 내용</p> <p>이조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청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요.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이니, 글을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이 성 밖으로 나가 말길을 터야 할 것이요.”</p> <p>예조판서 김상헌은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려쳤다. 김상헌의 목소리가 떨어 나왔다.</p> <p>“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소.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요.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돌우고 싸움으로써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화(和), 전(戰), 수(守)는 다르지 않소.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혀야 할 것이요.”</p> <p>최명길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p> <p>“예판의 말은 말로써 옳으나 그 헤아림이 얕소.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음은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인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소. 안이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단 말이오?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대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란 말이오. 더구나…….”</p> <p>김상헌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p> <p>“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향(降)이요.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p>

	<p>(중략)</p> <p>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p> <p>“예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이오. 예판은 지금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고 있소. 갇힌 성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오.”</p> <p>김상헌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p> <p>“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단 말이오? 이판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이며, 이판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고 있소. 나는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오.”</p> <p>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 들었다.</p> <p>“죽음은 가볍지 않으며,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려 하지 마시오.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격렬한 논쟁을 보여 준다. 이는 두 화자가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진심을 다해 정교한 논리로 피력하기 때문이다.</p>
2)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	
①	(가)~(라)는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을 보여 준다.
②	(가)에는 계속해서 말을 건네는 처에게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교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태도는 반복되는 일상과 가장으로서의 피로감에서 비롯된다.
③	(나)에는 전향을 설득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완고히 고집하는 이명준의 불통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이 추구하던 이상이 좌초되어 세상을 환멸하고 삶의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④	(다)에는 동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스노볼의 말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해력 결여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무지의 결과이다.
⑤	(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격렬한 논쟁을 보여 주는데, 이는 두 화자가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진심을 다해 정교한 논리로 피력하기 때문이다.
⑥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쫓기는 일상, 세상에 대한 환멸, 비판적 사고의 부재, 신념의 충돌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2. 2번 문제 풀이	
제시문 (라)의 소통 방식은 문제도 있지만 나름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효용을 기술하고, 제시문 (마)와 (바)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1)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라)	제시문 내용
	(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격렬한 논쟁을 보여 주는데, 이는 두 화자가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진심을 다해 정교한 논리로 피력하기 때문이다.
(마)	제시문 내용
	이순신은 7년 동안 이어진 임진왜란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12척의 배로 200여 척의 왜선 함대를 맞아 승전고를 울린 명량 대첩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이순신은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병사들을 한 마음, 한뜻으로 모았을까요?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에게 부산과 동래성이 연이어 함락되자, 경상 감사와 경상 우수사는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출전을 주장하는 장수들과 출전을 반대하는 장수들의 찬반 논쟁이 격렬하여 이들 사이에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자신의 출전 의지를 먼저 밝히지 않고 장수들의 찬반양론을 충분히 듣고 난 후 출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토론을 통해 출전 반대론자들의 근거였던 관할 지역 이탈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일본군에 대한 정보, 경상도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한, 충분히 토론을 하여 공동의 뜻을 확인하고, 장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이순신은 고뇌에 찬 결단을 과단성 있게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이순신은 첫 출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준에 따른 독해
	(마)는 명량 대첩을 앞두고 찬반 논쟁과 토론을 거쳐 성공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례를 보여 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라)의 논쟁은 일견 소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처럼 치열한 찬반격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그 대응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
(바)	제시문 내용
	옛 그림을 보여 드리기 전에 우선 옛 그림을 감상하는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인들의 그림을 잘 감상하려면, 첫째는 옛사람의 눈으로 보고, 둘째는 옛사람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란 똑같은 것인데 옛날 사람의 눈은 현대인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옛사람 마음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의아하지요? 요새 그림은 대개 이렇게 생겼지요? 가로가 길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그림은 족자건 병풍이건 세로가 길니다! 지금 우리는 가로쓰기를 하기 때문에 왼쪽 위부터 사물을 봅니다. 이게 사실은 서양 사람들의 습관이지요. 이와 달리 우리 조상들은 한문도 세로로 쓰셨고, 한글도 이렇게 세로쓰기로 쓰셨습니다. 시간을 들여 찬찬히 사물을 볼 때도 먼저 오른쪽 위를 봤다가 왼편

	<p>아래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스쳐 내려가지요. 이게 아주 다른 점입니다. 우리 그림을 무심코 서양식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위에 X 자가 그려지지요. 틀린 것입니다. 옛 그림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듯이 바라보지 않으면 그림 위에 X 자만 그어지고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옛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의 논지처럼, 논쟁과정에서도 이러한 역지사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자신에게 익숙한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견의 간극이 좁혀진 단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의 이순신처럼 중요한 시기에 쌍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p>
<p>2)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p>	
<p>①</p>	<p>(마)는 명량 대첩을 앞두고 찬반 논쟁과 토론을 거쳐 성공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역사적 사례를 보여 준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라)의 논쟁은 일견 소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처럼 치열한 찬반격론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그 대응 방안을 사전에 모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p>
<p>②</p>	<p>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옛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의 논지처럼, 논쟁 과정에서도 이러한 역지사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자신에게 익숙한 사고의 틀에서 탈피하여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견의 간극이 좁혀진 단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의 이순신처럼 중요한 시기에 쌍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p>

3. 3번 문제 풀이	
제시문 (사)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에 기술된 위정척사의 효과를 설명하고, 제시문 (자)의 논지를 사회 발전의 차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위정척사가 갖는 한계를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1) 기준에 따라 제시문 독해하기	
(아)	제시문 내용 19세기 중엽 서양 열강이 접근해 오자, 양반 유생들은 서양 문물의 수용을 거부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는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흥선 대원군 집권 당시 프랑스와 미국이 수교를 요구하며 침략해 오자, 이항로와 기정진 등은 척화주전론을 주장하며 흥선 대원군의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였다. 또한, 1870년대 일본이 문호 개방을 요구하자,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은 일본과 서양이 같은 세력이라는 왜양일체론을 내세우며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 1880년대에도 위정척사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영남 지방의 유생들은 이만손을 중심으로 「만인소」를 올려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위정척사 운동은 서양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침략에 맞선 반외세 운동이었다.
	제시문 내용 집단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구분 짓는 경계에 따라 집단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한다. 한 개인이 소속되어 동일시하는 집단은 '내집단'이고, 동일시하지 않고 이질감을 느끼는 집단은 '외집단'이다. 이는 구성원의 소속감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것이다. 내집단은 그 집단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집단의 구성원은 내집단 의식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집단 내의 유대감, 협동심 또는 충성심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외집단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고 이질감과 적대감을 느끼는 집단이다. 외집단에는 경기의 상대 팀, 타 종교 집단, 전쟁 중의 적군 등이 해당되는데, 구성원들은 때로는 외집단을 통해 집단 결속의 필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사)	기준에 따른 독해 (사)에 나타난 집단 개념을 토대로 (아)를 살펴보면, 성리학의 질서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조선인들은 내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고, 수교를 요구하는 서양 열강과 일본은 조선인에게 이질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외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집단의 침략은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내집단이 가지고 있던 소속감, 유대감,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시문 내용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환이든, 교환은 이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교환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 준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두가 스스로 생산한 것만 소비해야 한다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교환에서 나오는
(자)	제시문 내용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환이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환이든, 교환은 이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교환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해 준 기본적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두가 스스로 생산한 것만 소비해야 한다면 우리의 물질적 생활은 그야말로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교환에서 나오는

	<p>이득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범위가 커질수록 한층 더 커진다.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서만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비슷비슷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교환을 해 보았자 별다른 이득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의 범위가 마을 사람들 전체로 넓어지면 교환의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교환에서 생기는 이득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p>
	<p>기준에 따른 독해</p>
	<p>(자)의 논지에 따르면 위정척사는 교환과 교류에 따르는 이득을 최대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긴밀히 소통하거나, 자신의 것만이 옳고 타자의 것은 그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문물의 교류를 가로막음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사회가 정체되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
<p>2) 개요에 따른 답안작성하기</p>	
<p>①</p>	<p>(사)에 나타난 집단 개념을 토대로 (아)를 살펴보면, 성리학의 질서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조선인들은 내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고, 수교를 요구하는 서양 열강과 일본은 조선인에게 이질감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외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집단의 침략은 위정척사 운동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내집단이 가지고 있던 소속감, 유대감,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p>
<p>②</p>	<p>하지만 (자)의 논지에 따르면 위정척사는 교환과 교류에 따르는 이득을 최대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긴밀히 소통하거나, 자신의 것만이 옳고 타자의 것은 그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과 문물의 교류를 가로막음으로써 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사회가 정체되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